

## ‘한복의 미’

사진작가 조세현, 러시아서 한복사진전



“우리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러시아인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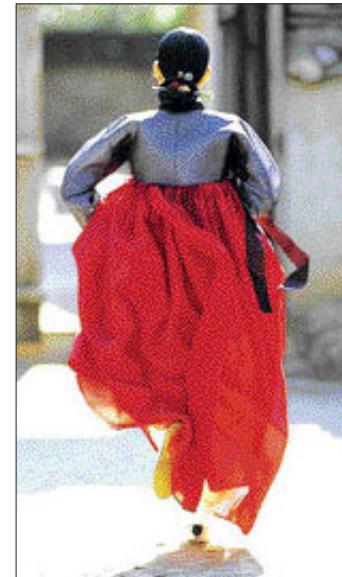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 에르미타주에서 한복사진 전을 개막한 사진작가 조세현(48·사진)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인 명사나 연예인, 모델을 찍은 화보나 광고사진, 구호단체와 함께한 아프리카 빈민사진이나 일상을 앞둔 아기들을 찍은 사진, 신문 칼럼 등으로 대중적으로 전속한 ‘스타’ 사진작가인 그는 요즘들어 활동 반경을 한창 넓히고 있다.

이번 에르미타주 박물관 전시가 2년여의 준비 끝에 성사된데 이어 내년에는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유럽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중국내 56개 소수 민족을 찍어온 프로젝트도 2~3년내로 완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국 사진작가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전공자의 진로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여성월간지 사진기자로 일할 때 선배들이 그가 찍은 인물사진들을 주목한 것이 인물사진을 찍게 된 인연이 됐다.



### 영암 박현식씨 산업포장, 이경호씨 총리표창



#### 농업의 날 정부포상

제 1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영암군 미암면 박현식(56)씨가 산업포장을, 영암군 망호리 이경호(45)씨가 국무총리 표장을 각각 수상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박현식씨는 미암농협점장과 지역사회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암 호박과 구마명품화에 앞장서는 등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또 국무총리 표장을 수상한 이경호씨는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현대증권본사와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 쌀 생산과 판로개척에 기여해 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장에 원효사 주지 혼지스님



원효사 주지 혼지 스님이 제4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취임한다.

지난 1994년 설립된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운동과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생명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장 및 골수, 뇌사시 장기 기증, 사후 시신 및 각기 기증 뿐 아니라 백혈병 등 혈액질환환자들을 위한 헌혈 봉사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총 회원수는 총 2만 명으로 회원들의 후원금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후원 기관과 함께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곽선정기자 ksj@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제갈양용씨 막내 대종(광주일보 광고부 부장)군 이경수씨 막내 은재양=19일(일) 낮 12시40분 청기와웨딩문화센터 2층 다이아몬드홀.

▲김우영(자영업)씨 차남 가원(한국기술연구조합)군 김병용(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씨 딸 혜진양=18일(토) 오후 11시30분 메리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차동복씨 차남 재영(서울 한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군 김순철(광주 남구청 세무과장)씨 차녀 옥희양=18일(토) 오후 1시 에벌루션 웨딩컨벤션 1층.

▲이영길씨 차남 철만군 박해준(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씨 차녀 향미(호남대 조교수)양=18일(토) 오후 1시30분 해남군 동아웨딩홀.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후 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장폭력상담소 무료상

#### ■美 ‘특수기동대 경연’ 참가 전남경찰특공대 조형의 경장

## 0.1초의 승부…150명 중 20위

지난 6월, 전국의 7개 경찰특공대에 ‘세계전술평가대회 참가 신청’(Swat Round-up International) 명령이 내려졌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수퍼 스완 캠(Super SWAT Cop) 대회다. 24년 째 매년 열리고 있지만 아시아권 나라는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출전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조형의(29) 전남경찰특공대 경장은 바로 ‘플로리다 행 티켓’ 거머쥐기에 나섰다. 전국 300여명의 경찰특공대원들과 기초체력과 사격을 겨뤄야 했다. 기준은 2km달리기 6분30초 이내, 모래주머니 냉기(100m) 18초 이내, 턱걸이 30개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275cm 이상, 사격술 95점 이상 등.

조경장은 43대 1의 경쟁을 끊고 ‘7인의 참수리 특공대원’으로 뽑혔다. 그리고 지난 6일~10일까지 열린 대회 개인전에서 150명 중 20위를 기록했다. 기록은 34분 24초.

#### 경쟁률 43대 1 ‘7인의 참수리 특공대원’ 뽑혀

“개인전 코스가 5km 정도 되는데, 일단 1마일(1.61km)을 달리고, 높이 120cm의 벽과 3m 높이 그물 담을 넘고, 9mm 글락17(권총)으로 표적을 맞춰요. 또 1마일을 뛰고, 레밍턴 870 엘리트 총으로 타깃을 쏘고, 다시 1마일을 달리고, 기관총을 쏩니다. 1초의 선택이 절대적이죠.”

조경장은 ‘7인의 참수리 특공대원’으로 뽑힌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영어회화학원에 갔고, 이후 출근 시간까지 가벼운 달리기를 했다. 최근 이후에도 근력 운동

#### “자신감 100% 충전, 내년엔 넘버 원”

등 ‘몸 만들기’에 열중했으니, 하루 4~5시간을 운동으로 보낸 셈이다.

특전사 출신인 조경장은 지난 2003년 경찰특공대 공채를 통해 입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체력·체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키 177cm·몸무게 75kg에 태권도 4단·특공무술 3단·유도 2단 등을 갖췄다. 조경장은 “이번 대회 성적은 여전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며 “외국 선수들과 달리 개인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시차·음식 부적응 등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감’ 하나는 100% 충전한 듯 보인다.

“내년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형의 경장은-

키 177cm 몸무게 75kg

태권도 4단 특공무술 3단 유도 2단

대통령 경호·경비 직전

2002 한·일 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당시 대테러작전 투입

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고 싶습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일 영국 런던의 오데온 레스터 스퀘워 극장에서 열린 007시리즈의 21번째 영화 ‘카지노 로열’의 월드프리미어 시사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참석. 남자주인공 다니엘 크리에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셀리자베스 여왕, 본드와 만나다

### 007 21탄 시사회 참석 데니얼 크리에그 격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제임스 본드 캐스팅 과정에서 많이 많았던 007 시리즈 21탄 ‘카지노 로열’의 세계 첫 시사회에 참석, 본드의 대니얼 크리에그(38)를 격려했다고 영국 석간 ‘이브닝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15일 전했다.

허리가 좋지 않다는 등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여왕은 14일(현지시간) 부군 필립 공과 함께 런던 레스터 광장 오데온 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장을 찾아 이전 5명의 멋진 신사풍 본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실적인 ‘21세기형’ 본드 크리에그와 제작진에게 지지를 보냈다.

시사회장엔 과거 본드걸 역을 받았던 마리암 디보와 ‘양자경’으로 알려진 중화권의 액션스타 양쯔중(楊紫瓊), 팝스타 엘튼 존과 모험을 즐기는 재벌로 유명한 리처드 브란슨 등도 자리를 잡았다. 브란슨은 “대니얼은 훌륭하다. 본드를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호평했고, 일부 여성 관객은 아예 “크리에그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크리에그는 시사회장을 당당하게 돌면서 영화 프로듀서 이자 여자친구인 앤서니 미첼과 영화 속 본드걸 역에 그린 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1953년 출간된 이언 플레밍의 첫번째 제임스 본드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카지노 로열’은 007이 영국 해외정보국(MI6)에 발탁돼 요원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첫사랑을 갈망하는 로맨스를 실감나게 그렸다는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 조지 클루니, 올 ‘세계 최고 섹시남’

### 피플지 선정…97년 이어 두번째 선정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45)가 미국 주간지 피플 선정 ‘살아있는 최고의 섹시한 남자’로 뽑혔다. 클루니의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한 남자’ 선정은 이번이 두번째다.

AP통신은 “1997년에 이어 조지 클루니가 다시 한번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한 남자’로 뽑혔다”면서 “지금껏 이 영예의 타이틀을 두 번 얻은 스타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브래드 피트”라고 전했다.

피트는 1985년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한 남자’를 선정·발표했다. 첫번째 영예는 멜깁슨에게 돌아갔으며 이후 톰 크루즈(1990), 브래드 피트(1995, 2000), 덴젤 워싱턴(1996), 주드 로(2004) 등이 바トン을 이었다.

클루니는 선정 소식에 “세 번째 영광을 노리던 피트가 섭섭해할 것”이라고 대답을 한 뒤 “피트에게 이번에 내게는 마지막 영광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며 웃었다.

피트는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해 클루니를 뽑았다”면서 “클루니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쟁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 남녀 48명씩 95명(3학급) 모집.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본교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www.k-songwon.es.kr](http://www.k-songwon.es.kr))에서 원서 교부하며 접수 및 면접은 12일부터 14일까지. 추첨 일은 16일 오전 10시. 등록 마감은 12월 20일. 문의 360-5593~4.

#### 모집

▲무등클럽 월례회=20일(월) 오후 7시 풍암동 송립원. 681-9993

#### 종친회

▲진양(진주)하씨 광주 회수회(회장 강하준) 월례회=18일(토) 오후 7시 주월동 BIG스포. 011-607-3369

▲전주리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이화회(회장 리진우) 월례회=21일(화) 오후 7시 전주리씨 광주전남도지관회 회의실. 225-5631

▲하동정씨 결연회(회장 정홍채) 도선산 시제 참석 모임=21일(화) 낮 12시 경남 하동 도선산. 오전 8시 광주역 광장 집결.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정기총회=23일(목) 오후 7시 광명회관. 010-6688-8983

#### 모집

▲송원초교 2007년 신입생 모집

인원 4명.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www.ri3710.org](http://www.ri3710.org)) 안내. 문의 223-3710, 3731 또는 [www.rotary.org](http://www.rotary.org)

#### 부모

▲김동철씨 별세 철수·철호·미희·미진씨 부친상 장희철·김치국·김계호씨 빙부상=발인 18일(토)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이강윤씨 별세 갑재·재·효재·길재·영자씨 부친상 정선·정태·정환·정래·은영·선아·보라·보람·지하·인하씨 조부상 김성룡씨 빙부상=발인 17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으로... 알귀반장례식장 광산구 우산동 80m, 도로변 전화 (062) 943-444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돌봄 특별분야 전화 (062) 521-1100
--	--